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8월 16일(수)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및 회원의 날 기획회의

## ■ 연구원 소식

### “화양연화, 꽃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나눕니다” 2024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달력 사진 공모전

사진 공모전 마감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회원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긴 달력 제작을 통한 회원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달력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회원님의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드린 SNS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안내 (9월 2일 ~ 9월 3일)



### 이오당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의 열일곱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土)~9월 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한옥마을 내 이오당"**입니다.

이오당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이어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집 뒷마루에 앉은 편안함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새로운 기운을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 역사속의 오늘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1976년 8월 18일

1976년 당시 판문점은 별다른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었다. 한국군 측 3초소는 조선인민군 육군 측 초소 3개소에 포위당한 지점에서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5초소 측에서 3초소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는데, 미루나무가 5초소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8월 6일 한국인 노동자 4명과 UN군 4명이 미루나무 절단을 시도했는데 이때 북한군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8월 18일 절단이 아닌 가지치기만 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0시 30분 노동자 3명, 장교 3명, 경비병 7명을 동원하여 가지치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때 북한군 군관 2명과 하전사 8명이 나타나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에 UN군은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중이라 설명했고 이때 현장에 있던 북한군도 수궁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지를 잘 치는 법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가지치기 작업은 매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10시 47분에서 50분 사이 갑자기 북한군의 박철 중위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나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철 중위는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근무가 3일밖에 남지 않았던 보니파스 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속행하도록 지시했고, 11시 30분에는 북한군 경비병의 숫자가 30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철 중위는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나 보니파스 대위는 재차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박철 중위가 소매를 걷고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호주머니에 넣으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북한군 경비병들은 일제히 소매를 걷었고 박철 중위는 즉각 “죽여!”라고 소리 지르며 보니파스 대위를 걷어차 폭행을 가했다.

보니파스 대위가 구타를 당해 쓰러진 후 인민군 한 명이 작업자들에게서 빼앗은 도끼를 그 뒷머리를 향해 휘두른다. 보니파스 대위 절명. 인솔 장교 중의 하나인 바레트는 필사적으로 UN군 초소 쪽으로 도망갔지만 이내 덜미가 잡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후 후송 중 사망한다. 불과 3분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근처에서 무비 카메라를 돌리고 있던 미군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월남 해방 이후 패전국이 된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략한 수치심에 떨고 있었다. 가뜰이나 그렇게 절치부심하는 와중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그것도 장교가 두 명 씩이나 도끼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미국을 뒤흔들었다. UN군 사령관 미 육군대장 리처드 스틸웰은 휴가차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사건 보고를 받자마자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해 급히 복귀했다. 휴전 이후 최초로 한국에는 '데프콘 3', 이후 데프콘 2(전쟁 직전 상황)까지 발동됐다. "우리도 다쳤다."고 북한이 우겼고 "미리 조작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장면을 카메라가 상세히 찍고 있었겠느냐"고도 항변을 해 봤지만 어쨌건 도끼를 휘두른 건 빼도 박도 못할 북한 군인이었다.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즉각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시간으로 8월 18일 오후 3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주재로 도널드 럼스펠드(아버지 부시 때도 국방장관을 지낸 이) 국방장관의 대리인 국방차관 윌리엄 클레멘츠, 합참의장인 미 해군대장 제임스 헬러웨이 제독, 대통령 안보 부보좌관 윌리엄 하이랜드 등이 참여한 워싱턴 특별대책단 회의가 소집되었다. 키신저는 현장 사진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고 사진에서 북한군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군을 권총으로 쏘죽였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CIA에서는 이 도발이 계획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참석자들도 동의했다.

북한도 전시 체제를 발동했고 평양 시민 수십 만명이 소개 내지는 지방으로 재배치됐다. 그러나 미국의 무력은 압도적이었다. 항공모함 세 척이 한반도로 접근했고 광에서 날아온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순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또 다른 전면전을 감당하기에는 월남전의 상처가 너무 컸다. 그들이 우회적으로 선택한 전술적 목표는 문제의 미루나무였다. 일단 여차 하면 때려 버린다는 시위를 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나무를 베어내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여차하면 이 작전의 산통을 깨겠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군이였다. 나무를 자르면서 혹시나 모를 확전을 경계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경계 병력에게 '몽둥이'를 들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한국군 특전사 부대원들은 카투사로 위장, M16 소총, 수류탄, 크레모아, M79 유탄발사기 등을 삽, 곡괭이 등 작업도구 밑에 감추는 식으로 트럭에 탑승하여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 도끼와 몽둥이를 가지고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했다.